

가출 청소년을 위한 가족관계 향상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 연구*

Development of a Family Relationship Enhancement Program for Youth Runaways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정문자
연세대학교 아동·가족상담센터
센터장 김진이
상담원 김태은
상담원 최난경

Department of Child and Family Studies, Yonsei University

Professor : Moon Ja Chung

Child & Family Counseling Center, Yonsei University

Director: Jiny Kim

Counselor: Tae Eun Kim

Counselor: Nan Kyung Choi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프로그램 실시 |
| II. 이론적 배경 | V. 프로그램 평가 |
| III. 프로그램 개발 | VI.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nd evaluate the efficacy of a Family Relationship Enhancement Program for runaway youth. The theoretical framework of this program was based on Solution-Focused, Satir's Experiential, and Cognitive-Behavioral models. Need assessment analysis of youth shelter workers, focus group interviews with runaway youths, and advisory council meetings were used as a complementary resource for this study. Thirty-one runaway youths from 6 youth shelters in Seoul and Kyunggi participated in 4 two-hour sessions of this Family Relationship Enhancement Program. All participants were subjected to pre-test and post-test analysis in order to assess the efficacy of the program.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the Family Relationship

Corresponding Author : Moon Ja Chung, Department of Child and Family Studies, Yonsei University, 262 Seongsanno, Seoul, 120-749, Korea, Tel: +82-2-2123-3149, Fax: +82-2-363-8877 E-mail: mjchung@yonsei.ac.kr

* 본 연구는 2009년 보건복지가족부의 지원을 받았음.

Enhancement Program had significantly increased the participants' self-esteem, communication capability, and understanding of family values.

주제어(Key Words) : 가출 청소년(runaway youth), 자아존중감(self-esteem), 의사소통 능력 (communication capability), 가족에 대한 이해(understanding of family values)

I. 서론

청소년기는 생애 발달적 관점에서 생물학적, 인지적, 사회·심리적 변화와 혼란을 가장 많이 경험하는 시기이다. 더욱이 현재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다양한 가치관, 입시 위주의 교육환경, 가족 구조 및 관계의 변화, 사회 경제적 격차 등은 청소년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청소년의 가출문제는 더 이상 비행 청소년에 국한되어 있지 않으며 일반 청소년도 경험하는 것으로, 가출한 청소년은 범죄의 가해자이자 피해자가 되어 사회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청소년보호위원회, 2002; Clatts, Davis, Sotheran, & Atillasoy, 1998).

2006년 쉼터 이용 및 보호 청소년의 가출이유를 살펴보면 가족요인(62.6%)이 절대적으로 높았고 그 다음이 심리요인(18.1%), 학교요인(6.9%), 친구 및 이성친구(4.1%) 순이었다(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2006). 가출의 가장 주된 위험요인인 가족요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모와의 불화, 부모의 폭행, 부모의 지나친 간섭, 부모와의 의견 차이로 인한 갈등 및 경제적 어려움 등이었다. 특히 이러한 부정적인 가족요인들은 청소년의 불안정한 심리요인과 결합하여 가족관계를 더 악화시키고 가족관계의 단절을 가져온다. 이러한 가족관계의 단절은 청소년기 발달을 저해할 뿐아니라 나아가 성인기 발달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가출 청소년에게 가족관계는 중요한 변인으로 지적되고 있다(김영순, 김혜원, 2007; 전귀연, 배문조, 2001; 현은민, 2000; Whitbeck, Hoyt, & Ackley, 1997).

가족관계는 가족구성원의 자아존중감과 의사소통 능력에 영향을 받는다(정문자, 2003). 낮은 자아존중감은 외현적 문제행동과 다양한 정신병리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으로 가족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구성원 간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의사소통 능력의 부족은 가족갈등 상황에서 합리적인 해결책 모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자아존중감과 의사소통 능력 결여에 따른 갈등적인 가족관계는 청소년의 인성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하여 청소년의 적응과 정서적 안정을 위협하고 가정 이탈을 촉진한다. 또한 가족에 대한 이해의 정도에 따라 가족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 즉 청소년이 가족이 처한 상황과 부모의 입장을 이해한다면 가족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갖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가족에 대한 유대감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가정 폭력과 같은 가출이 불가피한 상황의 청소년에게는 가족과 관련된 부정적 신념을 수정하여 미래에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가출 청소년 연구들에서도 가출 청소년의 가정 복귀 및 가족과의 정서적 유대와 애착을 촉진하는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강조(Bao, Whitbeck, & Hoyt, 2000; Riley, Greif, Caplan, & Macaulay, 2004)함에도 불구하고, 가출 청소년의 가족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과 인식변화 및 가족관계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가출 청소년에 대한 개입은 가출 청소년 보호 프로그램과 생활교육·사회적응 프로그램으로 대별된다. 보호 체계 방안은 국가나 사회단체의 지원으로 연구·시행되어 왔으며, 결과적으로 가출 청소년 쉼터를 일시쉼터, 단기쉼터, 중장기쉼터로 세분화, 전문화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국가청소년위원회, 2006). 반면, 가출 청소년의 생활교육·사회적응에 개입하는 방안은 상대적으로 소수의 관심 있는 학자들에 의해 연구되어 왔다. 이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들은 가출 청소년의 정서 조절, 자아존중감, 생활태도, 우울, 불안, 분노표현, 자기개념, 주장성(김민정, 2003; 류은수, 2006; 박은민, 2008; 이정희, 2000; 최정은, 김성천, 2006) 등을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왔으며 그 결과 정신·심리적 요인이 개선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많은 연구들이 10명 내외의 소수인원을 대상으로 시행되었으며 참여자의 자기보고에만 의존하여 효과를 검증한 점 등을 제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일부 쉼터에서는 자체적으로 가출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해 보고된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대다수의 쉼터에서는 가출 청소년의 가족관계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프로그램을 개발할 여건이 되지 않아 그에 대한 요구가 매우 크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출 청소년 쉼터 실무자 및 기관장을 대상으로 요구도 조사와 자문회의를 실시하고 가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포커스집단 면접을 실시하여 가출 청소년을 위한 가족관계 향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한다. 가출 청소년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청소년의 자기보고와 기관 실무자의 보고를 종합하여 다각적 측면에서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가출 청소년의 가족관계 향상과 사회 적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II. 이론적 배경

1. 가족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자신을 존중하고 가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이다. 그러므로 낮은 자아존중감은 기초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개인의 심리적 적응과 정신건강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높게 한다. 청소년은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문제행동을 더 많이 나타내는 경향이 있으며(유한규, 1997; 현은민, 2000) 가출 충동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장윤정, 1998). 즉, 청소년기에는 자아존중감의 발달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슈라고 볼 수 있으며, 특히 가출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낮을 것으로 지적됨에 따라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개입이 필요하다. 낮은 자아존중감으로 인한 청소년의 문제행동 및 정신병리는 가족구성원에게 심각한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여 가족관계와 구성원 간 응집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 가족관계와 가족기능의 저하는 청소년의 낮은 자아존중감에 다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문제행동과 병리적 정서를 더욱 악화시킨다. 따라서 가출 청소년의 가족관계 향상을 위해서는 자아존중감에 대한 개입이 요구된다.

2) 의사소통 능력

청소년보호위원회(2002)는 가출 청소년의 30.1%, 학생 청소년의 34.3%가 부모와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가출 충동을 느꼈고, 가출 청소년의 26.0%와 학생 청소년의 50.0%가 부모와의 갈등을 가출의 원인으로 꼽았다고 하였다. 즉, 부모와의 갈등은 청소년에게 심한 스트레스가 되며, 청소년은 부모와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가출을 선택한다.

일부 국내 연구들은 가출 청소년의 가족은 구성원들 간에 의사소통이 부재하고 의사소통 유형이 부정적이며 부모가 자녀를 이해하기 보다는 규제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하였다(김영순, 김혜원, 2007; 도수경, 1990). 가족 구성원 간의 부정적인 의사소통은 부정적 정서를 느끼게 하고 신경증 경험이나 자살 충동으로 고통 받게 하며 특히 청소년 자녀의 가출을 촉진한다(정문자, 2003; 전귀연, 배문조, 2001). 국외 연구에서도 가출 청소년의 51.8%가 부모와의 의사소통의 부재 또는 낮은 수준을 가출의 원인으로 지적하였다(미국가출 청소년법 연간보고서, 1978, 현은민, 2000 재인용). 이처럼 가출 청소년은 가정에서 긍정적인 의사소통의 경험이 부족하다.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언어

로 적절하게 표현하기보다는 폭력, 무시, 복종, 회피 등으로 대인 갈등을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청소년 자녀와 부모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 능력이 요구된다.

3) 가족에 대한 이해

가출 청소년은 갈등적이고 열악한 가정환경으로 인해 가족에 대한 개념이 부정적이기 쉽다. 가출 청소년은 가정을 감옥 같다고 생각하며 부모는 자신의 행동과 사회적 관계를 제한하고 애정과 온정이 없이 자신을 모욕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집을 떠나면서 자신에게 가정이나 가족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Peled & Muzicant, 2008). 가출 청소년은 가족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기 때문에 부모와 친밀하지 않고 부모를 신뢰하지 않으며 어려움이 있어도 부모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는다(Offer, Ostrov, & Howard, 1981). 또한 가족을 단절된 객체로 생각하고 가족에게 분노를 느끼며 가족이 자신을 배신했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이지현, 2008). 결과적으로 가족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일반화하고 애정과 온정 없는 가족 구성원의 역할을 학습하게 된다.

가출 청소년은 추상적이기는 하나 현실에서 갖지 못한 이상적인 가정과 가족의 이미지를 갖고 있다(이지현, 2008; Offer et al., 1981). 그리고 서로 이해하는 가족을 만들기를 원하며 서로 신뢰하는 가족을 현실에서 실현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하지만 가족에게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2006), 돌아간다 하더라도 해결되지 않는 가족 갈등, 폭력, 학대 등으로 자신이 바라는 수용적이고 온정적인 가족을 경험하기는 어렵다.

가출 청소년들은 가족관계에서 얻지 못한 소속감과 유대감을 거리에서 만난 또래집단과 정서적 유대를 형성함으로써 '가족'을 경험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또래집단이 늘어남에 따라 관계가 복잡해지고 혼란스러워 '거리 가족'은 오래 유지되지 못한다(김향초, 2005). 즉, 가출 청소년의 바람과는 달리, 현실에서 이상적인 가족을 구성하거나 경험하기는 매우 어렵다. 이는 청소년이 원가족 관계에서 경험한 부정적 역할을 미래에 재연함으로써 또 다른 가족 문제와 사회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가출 청소년이 건강한 가정의 의미를 이해하고 기능적인 가족의 역할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미래에 자신이 꾸릴 행복한 가정에 필요한 요소를 생각하고 설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2. 가출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가출 청소년을 위한 개입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청소년의

신변 보호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 생활교육·사회적응 프로그램으로 구분될 수 있다. 신변 보호에 비중을 둔 프로그램은 국내·외에서 가장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는 가출 청소년 프로그램으로 '거리 상담'이 있다. 우리나라 사회단체와 청소년 기관에서는 청소년들이 많이 모여 있는 장소에 가서 음식을 제공하고 소책자, 위급 시 사용할 수 있는 전화카드 등을 나누어주고 청소년의 고민거리를 들어 준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접근하기에 용이하며 그들을 염려하는 성인이 가까이 있음을 잘 전달한다(Erickson & Page, 1998, 김향초, 2005 재인용). 외국의 경우에도 가출 청소년을 찾아 거리로 나가는 형태의 상담이 많이 실시되고 있다. 미국의 브릿지 프로그램은 가출 청소년의 질병 치료와 음식 제공에 중점을 두며 스토어프론트 프로그램은 거리 생활을 벗어나고 싶어 하는 청소년들에게 쉼터 생활을 해 볼 기회를 제공한다(김향초, 2005).

국외에서는 생활교육·사회적응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다. 예를 들면, 에이즈에 대한 정보 제공, 대처 기술, 안전한 성관계를 위한 개인 상담(Rotheram-Borus, Koopman, Haignere, & Davied, 1991), 약물남용 감소를 위한 가족치료(Slesnick & Prestopnik, 2005; Slesnick & Prestopnik, 2009)가 실시되어 성과를 거두고 있다. Giffords, Alonso와 Bell(2007)의 가출 청소년을 위한 전환기 생활 프로그램(Transitional Living Program)에서는 개인교육, 독립적인 생활을 위한 기술 훈련, 대인 관계 및 협상 훈련, 영양학적 욕구 조절, 가계 관리, 위생관리, 여가활동 계획과 실천, 사회 규범 교육 등으로 가출 청소년의 사회적 행동을 향상시키고 잠재력을 강화하는 효과를 보였다.

국내의 경우, 생활교육·사회적응 프로그램은 일부 학자에 의해서 연구·실시되어 왔으나 청소년 관련기관에서는 활용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특정한 개념에 초점을 맞추어 개발하였거나 기존 프로그램을 변형하였거나 심리치료 모델에 기초하여 개발한 것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김수정과 손경숙(2007)은 가출 청소년의 정서조절능력 증진을 위해 Shield와 Cicchetti의 정서조절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적응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를 조절하도록 하는 집단상담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손경숙(2008)은 사회성 증진 프로그램을 Gresham과 Elliot의 사회성 기술 이론에 기초하여 아동의 발달 영역을 고려해 개발하였다. 박은민(2008)은 가출 청소년의 정서조절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육공학 및 교육과정 분야에서 제시한 교수학습 프로그램 모형과 건강행동 촉진 프로그램 모형을 보완한 김창대의 모델을 사용하였다. 남궁정과 조호제(2008)의 진로설계 프로그램은 캐나다의 여성취업서비스 단체에서 사용하는 프

로그램을 진로발달 이론과 기존의 진로설계 관련 프로그램을 참고하여 재구성한 것이다. 김민정과 김정규(2006)는 계슈탈트 치료에 기초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시하여 가출 청소년의 자기개념, 우울, 불안이 개선되는 효과를 거두었다. 또한 일부 청소년 기관들에서도 상담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나 프로그램의 내용이나 효과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이와 같이 심리치료 모델에 기초한 프로그램은 특정한 개념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이나 기존 프로그램을 변형한 것과는 달리 증상에 대한 가설과 치료적 영향이 명확하기 때문에 참여자가 프로그램을 통해 얻는 이득이 보장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프로그램 진행 중 예상치 못하게 나타날 수 있는 참여자의 내적 변화에 대처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가출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에서는 그들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그들의 자원과 장점을 발견하고 자기 성장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심리치료 모델이 유용하리라고 본다.

3. 본 프로그램의 이론적 기초

가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의사소통 능력 및 가족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인의 장점, 강점 및 자원 발견에 초점을 맞추는 인간중심적 관점을 지향하는 해결중심 접근, 개인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 일차적 의사소통 능력을 증진하고 원가족에 대한 이해에 초점을 맞춘 사티어의 성장 모델, 그리고 낮은 자기 평가, 가족에 대한 부정적 사고를 수정하고 치료에 대한 동기를 강화하기 위한 인지·행동치료를 이론적 기초로 삼아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해결중심 모델과 사티어의 성장모델은 가족 구성원 개인의 변화를 통해 치료에 참여하지 않은 구성원들까지도 변화시켜 가족관계를 향상시키는 가족치료의 이론적 기초로 널리 활용된다. 이는 가출 청소년의 가족원들이 모두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어려운 현실적 한계를 고려해 가출 청소년들에게 개입하는 본 프로그램의 목적 및 전략에 부합된다고 할 수 있다.

해결중심 접근은 개인이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자원과 능력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열악한 상황에서도 견뎌낼 수 있는 힘과 대처방법이 있음을 중시한다. 해결중심 접근에서는 치료자의 관점이 아니라 내담자가 변화하기 원하는 것으로 목표를 설정하며,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며 작은 것으로 목표를 설정하여 문제해결의 시작을 돕는다. 또한 병리적인 진단과 과거의 문제에 중점을 두는 대신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던 과거의 상황, 성공적인 경험과 문제

가 해결될 미래에 초점을 맞추어 목표 성취를 용이하게 한다 (Gingerich & Eisengart, 2000). 이 접근은 아동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미래설계 능력을 증진시키고 내면화·외현화 행동문제를 개선하며 타인을 공감하고 존중하는 자세를 갖는 데 효과적이었다(김영진, 2005; 김희정, 2007; 정문자, 김진이, 김태은, 김수지, 2007; Lee, 1997; Nims, 2007; Paylo, 2005).

사티어의 성장 모델은 인간에게는 발전하려는 욕구와 성공적으로 대처하고 성장하는 데 필요한 신념, 확신, 지식, 사랑, 관심, 인정, 나눔 등 내면의 자원과 에너지가 있다고 믿는다. 이를 바탕으로 개인의 자아존중감을 높이고, 자기 인생에 대한 선택권을 갖도록 하며, 가족의 규칙을 합리적이고 현실적으로 만들며 개인의 의사소통 유형을 일치적으로 만듦으로써 개인의 성장을 촉진하고 문제 상황에 창조적으로 잘 대처할 수 있게 한다(정문자, 2003; Nichols & Schwartz, 2002). 사티어 모델에 기초한 상담 프로그램들은 자아존중감과 의사소통 능력 향상, 자신과 가족에 대한 이해와 수용의 증가, 자신과 가족의 변화와 성장에 대한 희망 그리고 자기에 대한 긍정적 태도 향상에 효과적(심혜숙, 김수연, 2000; 이화자, 2002)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문제로 여겼던 사건이나 기억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당면한 문제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정문자, 김진이, 이현주, 2005).

인지·행동치료는 인지, 정서, 행동이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다고 보기 때문에 인지와 정서, 행동에 모두 개입하여 자기실현 경향성을 발휘하도록 돕는다. 문제는 중요한 타인으로부터 학습하였거나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비합리적 신념이나 신화 때문에 생긴다(Corey, 2003). 그러므로 비합리적 신념을 발견하여 합리적 신념으로 대체하는 것이 주요 목표가 된다. 인지·행동치료는 부정적 정서와 행동문제, 공포증, 유분증, 함묵증과 같은 아동·청소년의 문제 해결과 왜곡된 사고 교정에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Knell, 1998).

Ⅲ. 프로그램 개발

1. 프로그램의 개발과정

본 프로그램의 개발은 <그림 1>에 제시한 것처럼 다음의 5단계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1단계에서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준비로 국내·외의 가출 청소년 관련문헌을 조사하여 가출과 연관된 요인들을 조사하였다. 전국 쉼터 실무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를 조사하였고 쉼터 관련 기관의 기관장과 실무자들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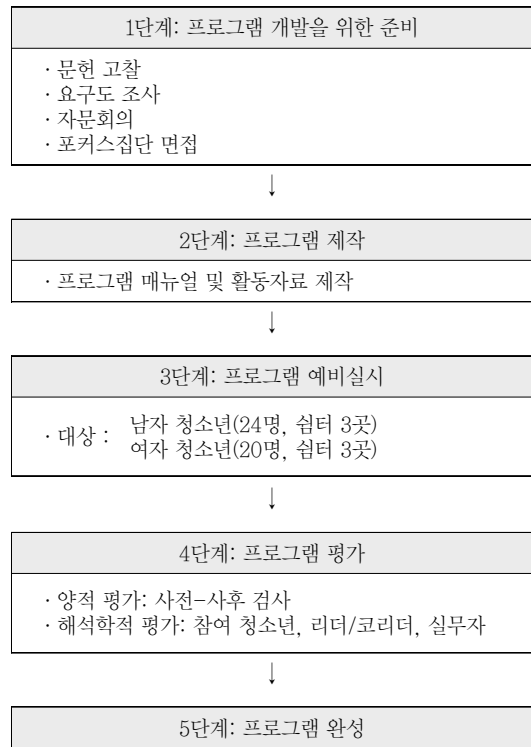
통해 쉼터에서 운영 중인 프로그램의 장·단점과 가출 청소년의 현실 및 특성을 파악하였다. 또한 쉼터에 거주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포커스집단 면접을 실시하여 프로그램에 대한 가출 청소년의 욕구를 깊이 있게 알게 되었다.

2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얻은 자료와 본 연구진의 다양한 임상경험에서 얻은 ‘노하우’를 통합하여 프로그램 매뉴얼과 활동 자료를 제작하였다.

3단계에서는 프로그램의 적용가능성과 접근성 그리고 현실성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남자 쉼터 세 곳에 거주하는 청소년 24명과 여자 쉼터 세 곳에 거주하는 청소년 20명에게 프로그램을 예비실시 하였다.

4단계에서는 프로그램의 타당성과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프로그램의 참여자, 프로그램 실시자 그리고 참여 기관 실무자들의 평가를 거쳤다.

5단계에서는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가출 청소년을 위한 가족관계 향상 프로그램을 완성하였다.



<그림 1> 프로그램 개발과정

1) 요구도 조사

프로그램을 개발하기에 앞서 가출 청소년 쉼터 실무자들의 요구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80문항의 설문지를 만들어 사용하였다. 설문지의 내용은 쉼터 정보, 실무자 및 입

소 청소년의 인구학적인 정보, 실시된 프로그램의 현황 및 효과, 그리고 입소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미래설계, 의사소통 능력, 분노조절력 및 가족관계에 대한 현재 상태와 프로그램 내용에 필요한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구성되었다. 2009년 4월 29일 전국에 소재한 청소년 쉼터 58곳에 요구도 설문지 159부를 우송하였다. 2009년 5월 20일까지 39곳의 쉼터에서 보낸 설문지 99부 중 응답이 불충분한 3부를 제외한 96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쉼터에 입소 중인 청소년은 8~13세 2.5%, 14~16세 28.2%, 17~19세 54.9%, 20세 이상 14.4%로 나타났으며 자아존중감, 미래설계, 의사소통 능력, 분노조절력 및 가족관계에 대한 프로그램의 필요도가 89.4~94.0%로 조사되었다.

조사 결과를 프로그램에 반영한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입소 청소년의 인구학적 정보에 기초하여 프로그램의 수준을 14~19세 청소년의 발달적 특성에 적합하게 하였다. 둘째, 가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미래설계, 의사소통 능력, 분노조절력 및 가족관계에 대한 현재 상태와 프로그램 내용에 필요한 정도를 조사한 결과에 따라 프로그램 활동을 구성하였다. 실무자들이 인식한 가출 청소년의 현재 자아존중감, 미래설계, 의사소통 능력, 분노조절력 및 가족관계는 전반적으로 낮은 점수를 나타내었으며 이 5가지 영역이 프로그램 내용에 필요한 정도는 모두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본 프로그램에서는 가족관계 향상을 위해 청소년이 자신에 대해 자긍심을 갖게 하고 가족과 더 잘 교류하도록 돕는 활동을 포함시켰다. 또한 청소년이 자신의 감정, 언어, 행동을 조절하고 미래의 가족을 설계해 보며 가족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을 통해 가족관계를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2) 자문회의

프로그램의 효용성과 실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2009년 4월부터 5월 사이에 서울·경기·충청 지역에 소재한 가출 청소년 관련기관의 기관장 및 실무자 다섯 명을 자문위원으로 선정하여 가출 청소년을 위한 가족관계 향상 프로그램 개발의 자문회의를 실시하였다. 자문회의를 통해 가출 청소년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졌으며 현재 쉼터에서 실시 중인 프로그램의 현황과 본 프로그램 개발 시 고려할 사항이 제안되었다. 결과적으로 가출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동적인 활동의 수를 늘렸고 프로그램의 횟수를 조정하였다. 가출 청소년이 가정으로 복귀하지 않더라도 가족과 정서적으로 연결되는데 도움이 되는 활동과 가족의 이미지를 호전시키는 활동들을 추가하였다. 정신지체, ADHD 그리고 심한 무력감을 가진 청소년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활동의 진행 방법을 다양화하였다.

3) 포커스집단 면접

포커스집단 면접을 통해 가출 청소년의 가족에 대한 인식, 쉼터에서 참여했던 프로그램의 장·단점, 가족관계 프로그램을 통해 배우고 싶은 점,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운영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2009년 6월 경기도에 있는 A 중장기쉼터에 거주하는 남자 청소년 5명과 B 중장기쉼터에 거주하는 여자 청소년 5명을 대상으로 포커스집단 면접을 실시하였다. 면접에 참여한 남자 청소년들의 평균 연령은 17세였다. 이들 중 1명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었고 나머지 청소년들은 학교에 다니지 않았으며 이 중 2명은 지능이 경계선 수준이었다. 면접 결과를 반영하여 회기별 시간을 2시간으로 하였고 프로그램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게임 형식의 활동과 의사소통 방법에 대한 활동을 추가하였다.

2. 프로그램의 목적

본 프로그램은 가출 청소년의 가족관계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이를 위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고 가족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하였다.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목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향상한다. 이를 위해 청소년은 자신의 장점과 자원을 발견하고 타인의 칭찬거리를 찾아보는 활동을 통해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갖는다. 이러한 기회를 통해 자신의 장점을 발견하기가 용이해지고 더 나아가 원만한 대인관계가 형성되어 자신에 대한 만족 수준이 높아져 자아존중감이 향상된다. 자아존중감의 향상을 통해 청소년은 가족과 더 잘 관계를 맺을 수 있으며 가족 스트레스 감소와 가족 응집력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둘째, 청소년의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한다. 이를 위해 청소년은 자신과 타인에 대한 신뢰감과 공감능력을 증진시키고 감정과 표현 능력을 향상시켜 의사소통 기술을 학습한다.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을 통해 가족구성원과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으며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가족관계를 증진할 수 있다.

셋째, 가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한다. 이를 위해 가족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생각하고 미래의 가족에 대해 설계해 봄으로써 가족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을 하게 된다. 이러한 경험으로 청소년은 가족과의 유대감과 소속감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가족에 대한 애착을 높여 가족관계를 긍정적으로 유지·향상시킬 수 있다.

3. 프로그램의 구성

본 프로그램은 문헌 고찰, 요구도 조사, 자문회의 및 포커스집단 면접 결과에 기초하여 구성되었다. 참여인원이 너무 적거나 많을 경우 참여자 간 의견 교환과 상호작용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한 집단에 6~8명 내외로 배정하였다. 회기 당 2시간씩 총 6회로 구성하였으며 게임, 토론, 역할극, 발표 등 동적인 활동과 생각하기와 같은 정적인 활동으로 균형을 이루었다. 각 회기의 도입단계에서는 청소년과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리더/코리더가 친밀감과 신뢰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게임 활동으로 시작하였고, 전개단계에서는 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실시하였다. 마무리 단계에서는 활동의 의미를 알려 주며 장점을 찾아 칭찬하는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프로그램 초반부인 1회와 2회에서는 자아존중감과 의사소통 능력에 개입하여 가족관계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기본 요소를 다지고 3회에서는 '가족'의 의미를 생각해보고 가족에 대한 마음을 표현하도록 하였다. 4회에서는 가족의 의미를 심화하도록 하여 미래의 나의 가족을 구체화하도록 하였다. 5회와 6회는 이전 회기를 통해 향상된 가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가족이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인정하고 구체적인 문제 해결방법을 경험해 보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1회에

서 4회까지는 가족관계 향상을 위한 기본활동이며 5회와 6회는 심화활동인데 심터 입소자의 여건과 상황이 허락된다면 기본활동 외 심화활동도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청소년들은 지지자원을 얻게 되고 긍정적인 경험을 하게 되며 실제 생활에서도 실천할 수 있는 힘을 키우게 된다. 프로그램의 회기별 목적과 활동 내용은 <표 1>과 같다.

IV. 프로그램 실시

1. 프로그램 참여 대상

본 프로그램의 현실성과 효과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서울·경기도 지역에 소재한 여섯 곳의 심터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 44명(남자 24명, 여자 20명)에게 본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4회에 걸쳐 실시된 프로그램에 3회 이상 출석한 청소년은 34명이었으나 설문지 작성을 거부한 1명과 설문지 응

<표 1> 프로그램의 회기별 목적과 활동 내용

회기	목적	단계	목표	활동 내용
1	자아존중감 향상	도입	· 라포형성	· 프로그램 오리엔테이션
				1. 알바 필요하십니까? 신체활동을 통해 집단원 간의 친밀감을 형성하고 긴장을 이완한다.
		전개	· 자아존중감 향상 · 집단응집력 증진	2. 나를 소개하자면... 자기 소개로 집단원 간의 이해를 도모한다.
				3. 과일 따기 신체 활동을 통해 집단 응집력과 집중력, 순발력을 키운다.
정리	· 자아존중감 향상	· 간식 · 메시지 작성 및 전달	4. 장점배틀, 허걱! 자신의 장점을 알고 표현함으로써 자아존중감을 높이며 타인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5. 환상의 콤피, 우린 할 수 있어! 광고 제작을 통하여 자신의 장점을 발견하고 활용할 계기를 마련한다.	
2	가족과의 의사소통 향상	도입	· 변화 파악	6. 나의 보물상자 타인의 장점을 찾고 자신의 장점을 확인함으로써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와 자아존중감을 높인다.
				· 라포형성 · 의사소통 능력 향상
		전개	· 의사소통 능력 향상	1. 작전 특명, 바이러스를 피해라! 경청과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말하기의 중요성을 안다. 타인에 대한 신뢰감을 높인다.
				2. 본대로 같은 것을 보아도 사람에 따라 다르게 기억할 수 있음을 깨닫는다.
정리	· 자아존중감 향상	· 간식 · 메시지 작성 및 전달	3. 미술관에 다녀와서 관찰한 것, 들은 것을 타인이 이해하기 쉽게 표현해 보면서 명확한 표현과 경청의 중요성을 안다.	
			4. 나 어떡해! 가족 갈등 상황에서 효과적인 대화법을 연습해 봄으로써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한다.	

(표 1) 프로그램의 회기별 목적과 활동 내용

회기	목적	단계	목표	활동 내용
3	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	도입	· 변화 파악	· 변화에 대한 질문
			· 라포형성	1-1. 강 스파이커(남자팀) 1-2. 뽕이요!!(여자팀) 신체활동을 통해 표현력을 증진하고 긴장을 해소한다.
		전개	· 문제해결력 증진 · 가족에 대한 이해	2. 우리는 패밀리 협력하여 과제를 수행하면서 문제해결력을 증진하고 집단 응집력을 키운다. 가족의 협력으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음을 안다. 3. 내가 만든 '미운오리 새끼' 역할극을 통해 성취감을 느끼고 자신감을 갖는다. 가족에 대한 마음을 표현하고 가족의 의미를 생각해 본다.
정리	· 자아존중감 향상	· 간식 · 메시지 작성 및 전달		
4	가족의 의미를 구체화	도입	· 변화 파악	· 변화에 대한 질문
			· 문제해결력 증진	1. 더 높고, 더 튼튼히 협력하여 과제를 수행하면서 문제해결력을 증진하고 협동의 중요성을 깨닫는다. 2. 10년 후 나는 10년 후 나의 모습을 만들어 보면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미래를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생각해 본다.
		전개	· 가족에 대한 이해 · 미래설계	3. 멋진 내 인생! 가족생활을 높이고 경험해 보면서 가족이 겪는 긍정적, 부정적 사건과 이에 대한 대처방법을 알아본다. 행복한 가족생활을 위해 필요한 요소들을 생각해 본다. 4. 내가 꿈꾸는 가족 미래의 나의 가족 모습을 만들어 보면서 가족생활을 구체화하고 가족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는다.
정리	· 자아존중감 향상	· 간식 · 메시지 작성 및 전달		
5	가족에 대한 정서 이해와 표현방법 익히기	도입	· 변화 파악	· 변화에 대한 질문
			· 정서표현	1. 두드림 다양한 정서를 안전한 방법으로 표현해 보고 부정적 정서를 건설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안다. 2. 내 마음을 알아줘 가족에 대한 마음을 이해하고 수용하며 표현해 본다. 가족에 대한 마음은 가족을 보는 관점에 따라 바뀔 수 있음을 안다.
		전개	· 정서조절 · 부정적 감정 해소	3. 시원하게 짹짹! 가족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글이나 그림으로 표현하고 해소한다. 4. 내가 만드는 감정피자 가족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피자토핑으로 표현해 보고 가족과의 행복했던 추억이 가족에 대한 마음을 변화시키는데 도움이 됨을 안다.
정리	· 자아존중감 향상	· 간식 · 메시지 작성 및 전달		
6	문제 해결능력 향상	도입	· 변화 파악	· 변화에 대한 질문
			· 협동심 증진	1. 은박구슬 모시기 신체활동을 통하여 협동심과 응집력을 증진한다. 2. 내가 바라는 것 자신의 소망을 탐색하고 실현 가능성을 타진한다.
		전개	· 문제해결력 증진 · 가족의 자원 탐색	3. 해결사를 찾습니다 문제해결을 위한 최선책을 찾음으로써 문제해결력을 향상한다. 4. 우리집 풀단지 가족의 자원을 탐색하면서 가족의 의미와 소중함을 깨닫는다.
정리	· 자아존중감 향상	· 간식 · 메시지 작성 및 전달		

답이 많이 누락된 2명의 자료를 제외한 31명의 자료가 최종 분석의 대상이 되었다.

참여자의 인구학적 특성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참여 청소년은 남자가 15명(48.4%), 여자가 16명(51.6%)이었으며 연령은 17~19세가 16명(51.6%)으로 가장 많았고 14~16세가 11명(35.5%), 20세 이상이 4명(12.9%)이었다. 청소년이 지각한 가정의 경제수준은 어렵거나 매우 어려운 편이 19명(61.3%)로 가장 많았다. 초기 가출연령은 15세가 7명(22.6%), 12세 이하가 6명(19.4%), 17세가 5명(16.1%)으로 나타났다. 쉼터 입소 횟수는 1회가 16명(51.6%)으로 가장 많았고 2회가 7명(22.6%), 3회 이상이 8명(25.8%)로 나타났다. 가출 전 한부모와 생활했던 청소년이 8명(25.7%), 양부모와 함께 생활했던 청소년이 7명(22.5%), 친구와 지냈던 청소년이 5명(16.1%)으로 나타났다. 프로그

<표 2> 참여자의 인구학적 특성 (N = 31)

변인	구분	명(%)
성	남자	15(48.4)
	여자	16(51.6)
연령	14세 이상~16세 이하	11(35.5)
	17세 이상~19세 이하	16(51.6)
	20세 이상	4(12.9)
경제수준	매우 잘 산다	1(3.2)
	잘사는 편이다	0(0.0)
	보통이다	10(32.3)
	어려운 편이다	14(45.2)
	매우 어려운 편이다	5(16.1)
	모른다	1(3.2)
초기 가출연령	12세 이하	6(19.4)
	13세	1(3.2)
	14세	4(12.9)
	15세	7(22.6)
	16세	3(9.7)
	17세	5(16.1)
	19세 이상 무응답	1(3.2) 4(12.9)
쉼터 입소 횟수	1회	16(51.6)
	2회	7(22.6)
	3회	3(9.7)
	4회	0(0.0)
	5회	3(9.7)
	6회 이상	2(6.4)
가출 전 동거인	한부모가정	8(25.7)
	일반가정	7(22.5)
	친구	5(16.1)
	재혼가정	2(6.5)
	조손가정	2(6.5)
	혼자	2(6.5)
	친척	2(6.5)
노숙	1(3.2)	
	무응답	2(6.5)

램에 참여하는 대상을 동질적인 배경을 가진 집단으로 구성하고자 하였으나 각 쉼터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수가 많지 않고 청소년들의 이동이 잦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동질적인 집단을 구성하기는 어려웠다.

2. 프로그램 실시

청소년 프로그램은 여자 청소년쉼터 세 곳과 남자 청소년 쉼터 세 곳에서 2009년 6월 15일부터 7월 11일 사이에 실시되었다. 남자 청소년쉼터 두 곳은 단기쉼터, 한 곳은 중장기 쉼터였고, 여자 청소년쉼터는 모두 중장기쉼터였다. 프로그램 실시일정은 쉼터의 사정에 맞추었으며 프로그램은 1회 2시간씩, 총 4회 진행하였다.

청소년들의 쉼터 입소 일시가 서로 다를 뿐 아니라 이동이 잦아 4회 이상은 참석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쉼터 실무자들의 의견에 따라 4회기(기본활동)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각 쉼터에서 1명의 리더와 1명의 코리더가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프로그램을 실시한 리더들은 청소년 및 가족 상담에 경험이 많은 치료자들로서 본 프로그램의 개발에도 참여하였다. 코리더들은 가족상담전공 석사생 네 명과 학부생 두 명으로 이들은 2009년 5월부터 2009년 6월까지 45시간 동안 프로그램 시행 훈련을 받았다.

V. 프로그램 평가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알아보기 위해 참여 청소년의 사전 검사점수와 사후검사점수에 대해 paired t-test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통계적인 분석방법으로는 간과되기 쉬운 참여자들의 주관적인 자기 변화에 대한 인식 즉, 가족관계 향상에 도움이 된 점과 그 외에 도움이 된 점을 알아보기 위해 연구진이 작성한 가족관계 향상 프로그램에 대한 개방형 평가를 사용하고 범주화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프로그램 진행자인 리더와 코리더, 프로그램 관찰자로 참여했던 쉼터 실무자에게 개방형 평가를 사용해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1. 참여 청소년의 평가

1) 양적 평가

(1) 측정도구

① 자아존중감

가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Rosenberg(1965)의 Self-Esteem Scale을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모두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정말 아니다(1점)'에서 '정말 그렇다(4점)'의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부정적 문항에 대한 응답은 역채점하며 점수범위는 10점에서 4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 계수 Cronbach α 는 .90이었다.

② 의사소통 능력

가출 청소년의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Canary가 개발한 Evaluation of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e(Canary, Cody, & Manusov, 2000)를 본 연구자들이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적응성, 관여, 대화관리, 공감, 효율성 및 적절성의 6개 하위영역으로 구분되며, 각 하위영역별로 3문항씩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의사소통 능력 평가에 적합하다고 판단된 4개 하위영역(관여, 대화관리, 공감, 적절성)의 12문항을 사용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척도에 응답하도록 되어있으며 점수범위는 12~6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 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내적합치도 계수 Cronbach α 는 .88이었다.

③ 가족에 대한 이해

가출 청소년의 가족에 대한 이해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본 연구자들이 척도를 개발하여 사용하였다. 가족과 상황에 대한 이해, 미래의 나의 가족에 대한 태도, 가족의 의미로 하위영역을 구분하고 문항을 구성하였다. '가족과 상황에 대한 이해'는 현재 자신의 가족과 가족이 처한 상황에 대한 인식과 이해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여기에 속하는 문항들로는 '나는 우리 가족이 처한 상황을 이해한다', '나는 우리 부모의 입장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등이 있다. '미래의 나의 가족에 대한 태도'는 미래에 자신이 꾸리게 될 가족에 대한 가치와 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나는 미래에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내가 만드는 미래

가족은 행복할 것이다.' 등의 문항이 포함된다. '가족의 의미'는 일반적인 가족에 대해 갖고 있는 가치 및 의미를 말한다. 이 영역에 속하는 문항들로는 '나는 가족의 의미와 소중함을 알고 있다', '가족이란 서로의 감정과 요구를 이해하는 것이 좋다' 등이다. 총 10문항으로 구성되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척도로 되어 있다. 점수범위는 10점~50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에 대한 이해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전체 문항에 대한 내적합치도 계수 Cronbach α 는 .89였다.

(2) 평가 결과

가출 청소년의 가족관계 향상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의사소통 능력, 가족에 대한 이해 검사 점수의 사전-사후 변화를 <표 3>에 제시하였다.

① 자아존중감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사전검사점수의 평균은 27.16이었고 사후검사점수의 평균은 29.0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점수 차이를 보였다($t = -2.12, p < .05$). 즉, 본 프로그램을 통해 가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향상되었으며 이는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을 위해 요구되는 기초능력이 개선되었음을 의미한다.

② 의사소통 능력

청소년의 의사소통 사전검사점수의 평균은 42.06이었고 사후검사점수의 평균은 46.32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점수 차이를 보였다($t = -3.85, p < .01$). 즉, 본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의 의사소통 능력이 증진되었으며 이는 가족갈등상황에서 긍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술이 개선되었음을 의미한다.

③ 가족에 대한 이해

청소년의 가족에 대한 이해 사전검사점수의 평균은 39.29였고 사후검사점수의 평균은 43.8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점수 차이를 보였다($t = -3.81, p < .01$). 즉, 본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의 가족에 대한 이해가 향상되었다. 이는 자신의

<표 3> 프로그램의 효과

(N = 31)

변인	사전검사		사후검사		paired-t
	점수범위	평균(표준편차)	점수범위	평균(표준편차)	
자아존중감	13~36	27.16(5.78)	17~40	29.00(5.81)	-2.12*
의사소통 능력	28~54	42.06(7.26)	34~59	46.32(7.21)	-3.85**
가족에 대한 이해	18~50	39.29(8.20)	26~50	43.80(5.78)	-3.81**

* $p < .05$. ** $p < .01$.

가족이 처한 상황과 가족에 대한 인식이 향상되고 건강한 가족관계 및 가족의 기능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2) 해석학적 평가

프로그램 종결 후 청소년들의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좋아진 점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프로그램을 통해 긍정적인 시각을 갖게 된 청소년이 10명(32.3%)이었고, 의욕 및 참여도가 증가한 청소년이 8명(25.8%)이었다. 청소년 6명(19.4%)은 타인 이해와 대인관계가 향상되었다고 하였으며 5명(16.1%)이 자기성찰이 증가되었다고 하였다. 4명(12.9%)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되었고, 4명(12.9%)이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을 보고하였다. 즉 청소년은 자아존중감의 향상으로 긍정적인 시각을 갖게 되고,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을 통해 대인관계가 향상되었으며, 자신의 가족 구성원에 대한 이해가 증가함으로써 타인에 대한 이해 및 미래에 대한 희망이 증가하여 건강한 가족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이 증진되었음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표 4〉 프로그램으로 좋아진 점 (N = 31)

내용 범주	빈도(%)
긍정적 시각	10(32.3)
의욕 및 참여도 증가	8(25.8)
타인 이해/ 대인관계 향상	6(19.4)
자기성찰	5(16.1)
미래에 대한 희망	4(12.9)
의사소통 향상	4(12.9)
응집력	3(9.7)
집중력 향상	2(6.5)
적응력 향상	2(6.5)

주. 다중응답

(2) 재미있었던 활동

참여 청소년들이 재미있었던 활동으로 17명(54.8%)이 4회기의 '멋진 내 인생!'을 꼽았고, 1회기의 '과일 따기', '나의 보물상자', 3회기의 '내가 만든 미운오리 새끼'를 각각 14명(45.2%)이 뽑았다. 그 다음으로는 4회기의 '더 높이, 더 튼튼히', '10년 후 나는', '내가 꿈꾸는 가족'을 각각 13명(41.9%)이 선정하였고 2회기의 '미술관에 다녀와서'는 12명(38.7%)이 재미있다고 보고하였다. 자아존중감 향상,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 가족에 대한 이해 및 문제 해결 능력의 향상에 목표를 둔 본 활동들에 흥미롭게 몰입했다는 것은 가족관계 증진

에 요구되는 심리적 요소와 인식 변화가 촉진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3) 아쉬웠던 점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참여 과정에서 아쉬웠다고 지적한 것으로는 16명(51.6%)이 프로그램이 짧아서 아쉽다고 한 반면, 6명(19.4%)은 아쉬운 점이 없다고 답했다. 청소년 4명(12.9%)은 자신이 더 잘하지 못한 것이 아쉬웠다고 하였고 3명(9.7%)은 활동이 자신의 수준과 맞지 않았다고 답하였다. 전반적으로 본 프로그램은 청소년의 흥미 유발 및 집중력 유지에 효과적이며 참여 동기를 자극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리더/코리더의 평가

청소년 가출 예방을 위한 가족관계 향상 프로그램 종결 후, 프로그램의 진행자인 리더와 코리더들이 함께 프로그램 평가회의를 실시하였다.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12명의 리더/코리더는 총 17개의 활동 중 15개의 활동에 대해 효과적이고 흥미로운 활동이라고 평가하였다. 구체적으로 이 평가회의에서 제안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알바 필요하십니까?', '과일 따기'는 집단원의 라포 형성에 유용하였으며 '장점 배틀, 허격!', '나의 보물상자'는 자아존중감과 타인에 대한 긍정적 관심을 향상시켰고 '10년 후 나는', '멋진 내 인생!', '내가 꿈꾸는 가족'은 참여자들이 미래를 설계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매 회 실시된 '메시지 전달'을 통하여 참여자 자신과 타인의 자원 및 장점을 찾아 볼 수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즉, 본 프로그램을 통해 가출 청소년들은 장점과 강점 발견함으로써 자아존중감 향상에 기여하고, 가족과의 갈등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술을 학습하였으며 가족의 기능과 역할을 재인식하고 가족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켰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참여자들의 지적 수준이 낮은 경우 창의적인 활동이 어려우며 열등감이나 소외감을 느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배려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3. 쉼터 실무자의 평가

프로그램의 실시 과정을 관찰한 쉼터 실무자 세 명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실무자는 프로그램의 활동이 청소년들의 관심과 흥미를 잘 이끌어 내었고 리더가 집단원과의 라포 형성으로 응집력을 강화하고, 집단원들이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도록 격려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프로그램의 활동을 통하여 청소년들이 경제관, 미래관 형성에 도움이 되었고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가 향상되었으며 긍정적 정서를 경험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이는 본 프로그램이 가출 청소년이

가족에서 경험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는 유대감, 소속감을 집단에서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하였고 건강한 가정을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요소를 인식하도록 도왔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VI.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가출 청소년을 위한 가족관계 향상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에 1차 목적을 두었으며 이 프로그램을 심터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에게 실시하여 이들의 자아존중감, 의사소통 능력, 가족에 대한 이해에 미치는 효과성을 알아보았다.

가출 청소년을 위한 가족관계 향상 프로그램의 실시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프로그램 참여 후 가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점수는 참여 전과 비교할 때 유의하게 상승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내담자 중심적이고 긍정적인 인간관을 강조하는 해결중심 접근과 사티어의 성장 모델에 기초하여 장점을 발견하는데 집중하였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은 깨닫지 못했던 자신의 장점을 인식하고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또한 과거의 실패나 현실적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하기 보다는 긍정적인 미래설계에 초점을 두었다. 이에 청소년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되었고 프로그램 리더와 다른 참여자들의 격려를 받으면서 자아존중감이 향상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청소년들이 협동하여 완수하는 활동에서 서로 지지하고 협력하면서 자신감과 성취감을 경험하게 되었고 이는 가족관계 향상의 기초가 되는 자아존중감 향상에 기여하였을 것으로 본다.

둘째,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의 의사소통 능력이 유의하게 향상되었다. 본 프로그램은 사티어의 성장 모델에 기초하여, 자신의 욕구와 소망을 솔직하게 표현하도록 격려했으며 인지·행동치료의 접근에 따라 청소년의 긍정적인 의사소통 방식을 강화하였다. 비난적인 의사소통의 원인인 자기 비하, 타인에 대한 적대감에 도전하고 이를 자기 존중과 타인 이해로 대체함으로써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켰다. 또한 타인의 입장을 고려하여 이야기하는 활동을 통해 공감능력이 향상되었고, 부정적 감정을 정화하고 건설적인 방법으로 표현하게 되면서 의사소통 능력이 증진되었을 것으로 본다. 이는 가족이 경험할 수 있는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기술의 향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가족관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가족에 대한 이해 수준이 유의하게 향상되었다. 가족의 온정과 보살핌을 느낄 수 있는 활동에 참여하면서 청소년들은 가족의 역할과 가치

를 긍정적으로 경험할 기회를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그 뿐 아니라 미래에 자신이 원하는 가족을 생각해 보고 가족이 경험할 수 있는 행복한 일들과 위기에 대처하는 방법 등을 활동으로 경험하면서 미래 자신의 가족에 대한 꿈과 희망을 구체화하고 시각화할 수 있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청소년이 가족에 대한 부정적 신념을 표현할 때도, 프로그램 리더와 코리더는 그들의 마음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공감하며 위로하였다. 이러한 경험은 청소년들이 가족에 대한 부정적 견해와 이미지를 객관화하는 데 도움을 준 것으로 사료된다.

결론적으로 가출 청소년을 위한 가족관계 향상 프로그램은 가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의사소통 능력 및 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에 효과적인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가출 청소년을 위한 가족관계 향상 프로그램을 실시할 때 고려할 사항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진행자는 본 프로그램의 철학적·이론적 배경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이 프로그램은 가족치료 모델인 해결중심 접근, 사티어의 성장 모델, 인지·행동치료에 기초한다. 해결중심 접근은 문제해결책 탐색과 실천, 장점과 자원 발견 및 활용에 집중하며, 사티어의 성장 모델은 자아존중감과 의사소통 능력 향상 및 원가족 이해를 중요시한다. 인지·행동치료에서는 비합리적이고 왜곡된 인지를 수정하고 긍정적이고 융통적인 사고와 신념을 강화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본 프로그램의 각 활동은 자아존중감, 의사소통 능력, 가족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각 활동의 의도를 충분히 이해하여 프로그램 참여자들에게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소년의 특성에 맞게 프로그램을 융통성 있게 실시한다. 본 프로그램은 14~19세 청소년의 인지 능력과 정서적 성숙도를 고려하여 개발되었다. 하지만 정신지체, 신경증, 정서적 미성숙의 어려움을 가진 청소년들은 활동의 내용이나 진행을 이해하기 어려워할 수도 있으므로 활동을 변형하거나 단순화시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면에 이러한 청소년들이 집단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령이 높은 청소년들은 프로그램 도입부에 부정적이며 비협조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으므로 활동 선결과 진행 방법에 있어 의견을 교환하는 협동적 자세가 필요하다.

셋째, 본 프로그램은 1~4회의 기본활동에서 자아존중감, 의사소통 능력 및 가족에 대한 이해에 초점을 두었고, 심화활동인 5회에서 부정적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과 6회에서 문제해결력의 향상에 중점을 두었다. 본 프로그램은 심터의 상황에 따라 횟수와 회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단기심터같이 가출 청소년의 입출소가 빈번하며 예측이 어려운 경우 기본활동인 4회기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중장기심

터 및 학교에서는 기본활동의 2회기 심화활동을 추가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다.

본 연구의 의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프로그램은 가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의사소통 능력, 가족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켰다. 자아존중감이 높으면 가출, 약물남용, 폭력, 성문제 등 비행을 범할 가능성이 감소되고(김정원, 1992) 의사소통 능력 수준이 높으면 대인관계 상의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김영순, 김혜원, 2007; 도수경, 1990) 가족 갈등으로 인한 가출의 가능성이 감소된다. 또한 가족의 의미와 기능에 대해 이해하고 미래 자신이 꾸릴 가족에 대해 긍정적 이미지를 형성하는 것은 이들이 미래에 건강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도와 가정문제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예방할 수 있게 한다. 즉, 직접적으로는 청소년의 재가출 예방을 돕는 보호요인을 강화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삶을 증진하고 향후 건강 가정 육성이라는 파급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둘째, 가출 청소년에 대한 연구에서 이들의 가족관계에 개입하는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강조되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프로그램을 거의 찾아볼 수 없었던 이유는 가출 청소년의 가족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한다는 생각과 현실적으로 이들이 참여하기 어려운 여건들 때문이었다. 가출 청소년의 가족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본 연구에서는 가족 구성원 개인의 변화를 통해 치료에 참여하지 않은 구성원들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족치료 모델을 적용하였다. 이를 통해 가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의사소통 능력, 가족에 대한 이해가 증진하였고 이는 가족관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본 프로그램은 가출 청소년과 쉼터 실무자 및 기관장의 의견과 요구를 참고하여 개발되었으므로 현장에서 사용하기에 용이하며 현실적이다. 구체적으로 프로그램 횟수, 소요 시간을 조정하였고 가출 청소년의 특성에 맞게 정적인 활동과 동적인 활동을 균형있게 안배하였다.

넷째, 본 프로그램은 가출 청소년 뿐 아니라 일반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건강 및 성장과 가출 예방에도 효과가 클 것으로 사료된다. 자아존중감은 청소년기 발달 과업인 자아정체감 형성을 촉진하고, 의사소통 기술은 청소년의 사회 적응과 대인관계 향상에 필요한 요소이다. 가족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과 원만한 부모-자녀 관계는 청소년기에 증가되는 자의식과 독립심으로 생길 수 있는 부모-자녀 갈등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청소년의 가출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프로그램 실시 현장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프로그램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프로그램 참

여자를 대상으로 사전 사후 검사를 실시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나누어 연구설계를 하여 보다 객관적인 프로그램의 효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프로그램은 일반 청소년 가출 예방에도 활용할 수 있으므로 중·고등학교에 보급, 실시한다면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쉼터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단기간으로 실시하고, 부모의 개입과 참여가 어려우나 학교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은 보다 장기적인 프로그램을 적용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가족의 프로그램 참여와 개입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보다 효율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본다.

셋째, 가출 청소년의 부모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은 청소년 재가출의 예방에 매우 효과적일 것이라 사료되나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가출 청소년들의 부모들이 교육이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제도적으로 마련된다면 청소년 가출 예방에 효과적이며, 결과적으로 사회적 비용의 감소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본 프로그램은 가출 청소년을 위해 자아존중감과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 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에 효과가 있었는데, 일시적인 변화인지 또는 장기간 효과가 지속되는지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추후검사나 추적 연구를 실시한다면 본 프로그램의 장기적인 효과 및 기여도를 알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연구들이 축적됨으로써 본 프로그램의 효과를 지속할 수 있는 방안들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청소년 가출 예방 프로그램의 효과성이 검증됨에 따라 본 프로그램을 가출 청소년 쉼터에 보급,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실무자를 위한 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 실무자는 프로그램 교육을 통해 본 프로그램의 이론적 기초와 실시 방법을 이해함으로써 현장에서 프로그램을 더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 참고문헌

국가청소년위원회(2006). **단기청소년쉼터 세부운영모형개발연구**. 서울: 국가청소년위원회.

김민정(2003). 계슈탈트 집단치료가 가출 청소년의 자기개념, 우울, 불안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민정, 김정규(2006). 계슈탈트 집단치료가 가출 청소년의 자기개념, 우울, 불안에 미치는 영향: 여자 가출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5(2), 41-57.

김수정, 손경숙(2007). 가출 청소년의 정서조절능력증진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검증. **사회복지**

연구, 35, 409-439.

김영순, 김혜원(2007). 청소년 가출의 실태 파악과 가정, 학교, 성격 및 자아개념과의 관련성 분석. **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지, 5(2),** 43-55.

김영진(2005). 해결중심단계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고립아동의 교우관계와 자기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정원(1992). 청소년기 우울과 비행간의 관계 : 인지적 몰락을 매개변인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향초(2005). **가출 청소년 이해와 지원 프로그램**. 서울: 학지사.

김희정(2007). 문제아동을 위한 해결중심 가족치료의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5(2),** 277-299.

남궁정, 조호제(2008). 가출여자 청소년들의 학교적응을 위한 진로설계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8(1),** 125-146.

도수경(1990). 가출 경험 소녀와 비가출 경험 소녀 간의 가족관계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류은수(2006). 인지 행동적 집단치료가 가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우울, 불안, 분노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박은민(2008). 가정학대 피해 가출 청소년을 위한 정서조절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손경숙(2008). 가출청소년의 사회성 기술증진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검증. **임상사회사업연구, 5(3),** 25-48.

심혜숙, 김수연(2000). Satir 가족조각기법 집단상담이 인생태도에 미치는 효과 및 상담효과 요인 분석. **한국가족치료학회지, 8(2),** 3-22.

유한규(1997). 청소년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이정희(2000). 가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회기술훈련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카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이지현(2008). 가출 청소년의 가족이미지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기독교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이화자(2002).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중년부부를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연구: Satir의 가족치료 모델을 중심으로. 상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장운정(1998). 여성청소년의 가출태도 및 예방적 개입 방안에 관한 연구-여중생을 중심으로.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전귀연, 배문조(2001). 가출행동 빈도에 따른 청소년의 가족 특성비교. **한국가족복지학, 6(1),** 107-125.

정문자(2003). **사티어 경험적 가족치료**. 서울: 학지사.

정문자, 김진이, 김태은, 김수지(2007). 아동의 리더십 증진을 위한 통합적 프로그램의 효과. **아동학회지, 28(4),** 229-244.

정문자, 김진이, 이현주(2005). 이혼 가정의 아동과 어머니의 사회적응을 위한 통합적 집단치료의 효과성 연구. **대한국정학회지, 43(6),** 145-168.

최정은, 김성천(2006). 해결중심 집단상담이 시설거주 가출 소녀의 자아존중감과 생활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4(2),** 23-52.

청소년보호위원회(2002). **청소년유해환경종합실태**. 서울: 청소년보호위원회.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2006). **가출 청소년 및 청소년쉼터 실태조사**. 서울: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현은민(2000). 청소년의 가출 : 가족적, 개인적 요인 및 대처행동의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8(2),** 41-55.

Bao, W., Whitbeck, L. B., & Hoyt, D. R.(2000). Abuse, support, and depression among homeless and runaway adolescents. *Journal of Health & Social Behavior, 41,* 408-420.

Canary, D. J., Cody, M. J., & Manusov, V.(2000). *Interpersonal communication: A goals-based approach*. New York: Bedford/St. Martin's Press.

Clatts, M., Davis, W., Sotheran, J., & Atilasoy, A.(1998). Correlates and distribution of HIV risk behaviors among homeless youths in New York City: Implications for prevention and policy. *Child Welfare, LXXVII(2),* 195-207.

Corey, G.(2003). *Theory and practice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6th Ed.). Belmont, CA: Wadsworth/Thompson. **심리상담과 치료의 이론과 실제**. 조현춘, 조현재(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2001년 원저 발간)

Giffords, E., D., Alonso, C., & Bell, R.(2007). A Transitional Living Program for Homeless Adolescents: A Case Study. *Child Youth Care Forum, 36,* 141-151.

Gingerich, W, J., & Eisengart, S.(2000). Solution-Focused Brief Therapy: A Review of the Outcome Research. *Family Process, 39(4),* 477-498.

Knell, S. M.(1998). Cognitive-Behavioral play therapy.

-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7(1), 28-33.
- Lee, A.(1997). Psychoanalytic play therapy. In O' Connor, K., & Braverman, L.(1997). Eds. *Play therapy theory and practice*. NY: Wiley & Sons.
- Nichols, M., & Schwartz, R.(2002). *Family Therapy: Concepts and method*. 가족치료: 개념과 방법. 김영애, 정문자, 송성자, 제석봉, 심혜숙, 김정택, 정석환, 김계현(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2001년 월저 발간)
- Nims, D. R.(2007). Integrating play therapy techniques into solution-focused brief therapy. *International Journal of Play Therapy*, 16(1), 54-68.
- Offer, D., Ostrov, E., & Howard, K. I.(1981). *The Adolescent: A psychological Self-portrait*. New York: Basic Books.
- Paylo, M. J.(2005). Helping families search for solutions: Working with adolescents. *Family Journal*, 13, 456-458.
- Peled, E., & Muzicant, A.(2008). The meaning of home for runaway girls.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36(4), 434-451.
- Riley, D. B., Greif, G. L., Caplan, D. L., & Macaulay, H. K.(2004). Common themes and treatment approaches in working with families of runaway youths. *The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32, 139-153.
- Rosenberg, M.(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otheram-Borus, M. J., Koopman, C., Haignere C., & Davied, M.(1991). Reducing HIV sexual risk behaviors among runaway adolescents.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266, 1237-1241.
- Slesnick, N., & Prestopnik, J. L.(2005). Ecologically-based family therapy outcome with substance abusing runaway adolescents. *The Journal of Adolescence*, 28, 227-298.
- Slesnick, N., & Prestopnik, J. L.(2009). Comparison of family therapy outcome with alcohol-abusing, runaway adolescents.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35(3), 255-277.
- Whitbeck, Les B., Hoyt, D. R., & Ackley, K. A.(1997). Families of homeless and runaway adolescents: A comparison of parent/caretaker and adolescent perspectives on parenting, family violence, and adolescent conduct. *Child Abuse & Neglect*, 21(6), 517-528.

접 수 일 : 2009년 9월 30일

심사시작일 : 2009년 10월 8일

게재확정일 : 2009년 11월 17일